

오피니언

월/요/광/장

한 희 원



요즘 두 권의 책을 가까이 두고 있다. 한 권은 아침에 그림을 그리려는 준비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책이고, 한 권은 작업실에서 무더움으로 지쳐갈 무렵 고즈넉한 저녁노을이 창가에 하나 둘 찾아올 때 읽는 책이다.

아침을 맞이할 때 읽는 책은 일본의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의 '소설가의 각오'라는 산문집이다. 마루야마 겐지는 1945년 나가노현 이에야마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본 현대 문학의 '작가정신'으로 불릴 정도로 가족화하지만 소설쓰기에만 전념하는 일본 문학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설가다.

1966년 '여름의 흐름'으로 문학계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같은 작품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상을 최연소로 수상했다.

그는 소설을 쓰기 전에는 통신사에서 전문을 발신하고 수신하는 일을 하였다. 이런 경험이 일본문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일본 문학에서 가장 특출한 작가로 평가받는 바탕이 된 것 같다.

데뷔 직후 일본 북알프스 기슭의 오지 마을로 들어간 그는 그 때부터 문단과 여타 인간관계를 단절한 채 글쓰기만 전념하여 오직 원고료 수입만으로 수도승같은 고독의 소설쓰기만 평생 전념하였다.

이 산문집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가혹한

고통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시대

소설가의 정신과 예술가의 자세를 만날 수 있어 무언가 쫓기면서 작업하고 살아가는 필자에게 얼음 같은 비수를 들이쳤다.

자녀 무렵에 읽는 또 한 권의 책은 '포구 기행' 이후 오랜만에 책을 낸 광재구 시인의 '우리가 사랑하는 1초들'이라는 산문집이다. 시인이 일년 반 동안 인도 시성(詩聖) 타고르의 고향인 산티니케탄에 살면서 그 곳에서 보고 느낀 것 가난한 인도의 이웃과 풍경들을 깊은 서정적 문체로 일기처럼 써내려간 산문집이다.

땀골을 익혀 아름다운 타고르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어 인도로 간 시인은 처음 몇 달 동안 풍토병에 걸려 죽을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곳을 떠나지 않고 견디며 산티니케탄에 융화되어 가난한 민자들의 영혼들을 아름다운 필자로 그려내고 있다. 자녀 무렵에 이 산문집을 읽으면 지쳐버린 영혼을 고요하게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아침저녁으로 읽는 이 두 권의 산문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그들의 예술이 고통이라는 토양에서 창작되었다는 것이다. 마루야마 겐지는 24시간 소설

을 생각하는 작가로, 적당히 삶을 즐기다 적당한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닌 감옥 같은 절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절절한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하며 민자의 삶으로 소설가의 생을 살고 있는 작가이다. 광재구 시인도 산문집에서 인도 산티니케탄의 지극히 가난한 삶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삶과 융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버림'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채움'으로

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없음'과 '버림'을 배우지 않고 오로지 '인용'과 '채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고통으로 가는 길임을 모르고 아등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과 경제적 혼란도 그 근본에는 극한적인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쉽게 마르지 않는 법이다. 거처를 들떠서 수많은 세월을 견디어 낸 야생화와 온실 속에서 자란 화려한 꽃들이 어찌 그 생명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처럼 일류만을 지향하고 극한적인 경쟁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채 배려하는 마음을 잃고 온실 속에서만 자란 나 혼자만의 나약한 정신으로는 급변하는 격랑의 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고통의 아름다움을 어린 시절부터 체득해야 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들이 얼마나 크고 거친 바람 속에 피는 들녘의 야생화는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통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것 같다.

(서양 회화)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이 동 원

철순 어르신에 검찰청 시위

그에 따라 매일 정기적으로 그녀의 아들(어르신의 손자)과 만남의 자리를 갖던 중 모정(母情)이 지나쳐 아예 아들을 양육할 의도로 데려가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런 상황에 그 아이의 아버지도, 이 손자를 끔찍이 귀여워했던 어르신도 많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고소장을 손에 들고 검찰청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형법상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설령 친 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어르신의 고소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이 어르신이 "왜 내 손자를 엄마로부터 빼앗아 돌려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어르신께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은 민사재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검찰청에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한 수사나 처벌 등에 대한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유아인도취구'의 문제에 대해 검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입장은 완고했다. 검사는 죄 지은 사람에게 '감옥속'에 보낼 수 있는데, 어린 아이 하나를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이 어르신의 "할 생각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니, 해결 때까지 매일 검찰청에 오겠다"고 했다. 필자는 "연세도 높으신데, 이렇게 매일 오시다 건강에 탈이라도 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내가 지금도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걱정 말드라고"로 돌아왔다.

결국, 이 문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엄마가 자진하여 아이를 어르신께 돌려보내으로써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이 어

르신 생각 속에 있던 '검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

단순히 법률체계를 모르시는 분이 막무가내로 시위를 했다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내가 지금 검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각종 죄명을 적은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고소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구제받기 위해 고소했다"고 답변한다.

상당수의 고소장은 법률요건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분들의 바람을 법률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냥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에 앞서 피해자의 마음, 그 예타는 심정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철순의 어르신께서 젊은 검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을까.

오늘도 산적한 사건기록을 앞에 두고 검사의 소임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임 영 울

'재정자치' 확보가 진정한 지방자치

로 줄었다. 야구장 건설,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재정적인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불안정한 자체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가 알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정부의 의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조들리는 지방에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면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방의 고삐를 더 조이는 것으로 해결력을 찾으려한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규모를 넘어서는 호화청사를 짓기도 하고 검증된 적 없는 드라마세트장이나 모노레일 등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속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잘못된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호도하고 지방이 가져야 할 당연한 예산·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수치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은 8대2인 반면 세출은 4대6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지방은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손발이 뻗도록 중앙에 쫓아다니며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다. 한 지방공무원의 중앙정부 공무원에게 몸매 지니면 행운이 온다는 호랑이 수업을 실제로 구해다 바쳤다는 일화도 있다.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42%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이고,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겨우 20%이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자치구가 5곳 중 4곳에 이른다.

피해다니기 바쁘고 그러다가 사고를 내거나 욕설을 듣는 것이다. 주택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하지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려울수록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자체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의 경우 이런 생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국비확보액은 1조46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8%가 늘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6%가 늘어난 2조원 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499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가 증가했다.

채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광주시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3만 4000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적으면서(서울 114만원, 부산 73만5000원, 인천 79만9000원) 주민 1인당 세출액은 160만9000원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가장 많다(서울 141만원, 부산 155만7000원, 인천 143만 3000원).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편결과물이다.

건설 재정운영과 국비 확보에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미흡한 지방자치의 보완을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광주시 지지행정과장)

사고 위험 부르는 화물차 도로 불법주차 단속해야

며칠 전 저녁에 아이들이 태우고 시내에 나가다가 불법 주차돼있는 기다란 화물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가다가 반대쪽에서 과속 질주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할 뻔 했다. 트럭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치르는 욕설을 들어야만 했다. 차에 타고있던 아이들까지 그런 황당함 욕설을 듣고 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매일 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왕복 2차선 가운데 1개 차로로 영업용 화물차뿐 아니라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더 같은 건설용 중장비들이

차지하고 있다. 화물차는 원래 차를 세워둘 차고지를 마련해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그런데 도심의 주차장은 비싸니까 번두리 한데다 차고지를 만들어 신고만 해놓고는 차를 거기다 대놓고 집에까지 돌아오기가 멀고 귀찮으니까 트럭들이 차고지를 무시하고 그냥 시내로 들어와 아무데나 마구 세워두는 것이다.

결국, 차고지 증명은 전부다 가짜 증명인 셈이 되고 졸지에 주택가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트럭에 밀려 차를 뺄 수도 없고 차를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 설

40만 지역 비정규직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광주·전남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일 시일용직 수준의 근로자까지 합치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열악한 고용조건에 놓여 있는 지역 근로자는 60~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졸자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젊은층도 크게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시장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월 급여는 120~150만 원에 불과해 4인 가족 기본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언제 계약이 끝날 줄 몰라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투잡' '스리잡'에 나서고 있다.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신문배

달, 대리운전 등 다치는 대로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스스로가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정규직의 고임금 부담을 줄여 인건비 지출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들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못 본 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고용시장의 비정규직화는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고용으로는 국민 생활을 절대 안정 시킬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양산해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근로자가 불안해하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도를 넘어선 공직비리 '일벌백계' 다스려야

광주·전남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정 급고과 법인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기프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3년간 16명이 2640만 원, 전남도와 22개 기초단체에선 48명이 7757만 원을 지원받아 위의를 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광주 3명, 전남 11명은 불법으로 가면서 버젓이 국외여행사까지 받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목포시 금고선정 위원인 A국장은 지난해 6월 지정급고 금융기관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원받아 자신의 지인과 자녀에게 서류업 여행용 가도록 했으며, 금고 담당인 A계장은 지난해 2009년 6월 35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아내에게 북유럽 여행을 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광주시 광산구도 법인카드 사용에 따

라 일정 한도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세입 조치하거나 행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0만 원을 지원받아 부서회식비 및 직원 설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했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일선 지자체의 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적당히 넘겨선 안 된다. 지난해 뇌물수수과 공금 횡령 등 부정용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광주시 관내 공무원이 79명,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234명에 달한 것도 도덕적 일탈행위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루야 한다. 솜방망이 징계가 더 큰 문제를 부르고, 화를 자초했던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당 자치단체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허술한 제도를 서둘러 손질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저기 어딘가 무지개 너머 하늘 높은 곳에/자장가에서 들었던 나라가 있지/저기 어딘가 무지개 너머 하늘은 푸르고/당신이 감히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지요."(오즈의 마법사 주제가 'Over the rainbow')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내 가슴 뛰노느니/어린 시절에 그러했듯/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가지/천 세운에도 그렇게 못하다면/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윌리엄 워즈워스 '무지개')

소나비가 갠 여름철 하늘에는 비가 가져다 준 선물인 띠다. 햇빛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물방울들에 의해 반사·굴절돼 나타나는 일곱 빛깔의 원호(圓弧), 이렇듯 고은 무지개다. 무지개는 물(水)의 고어인 '물'에 '지'가 합쳐진 것이다. 여기서 지는 양쪽에 서로 맞닿진 짝 문을 뜻한다. 어원 상 의미는 '물로 만든 문'인 셈이다.

서양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하늘의 활'이다. 프랑스어 아르캉시엘(arc-en-ciel)이 그렇고, 영어 '레인보우'(rainbow)나 독일어 '레겐보겐'(Regenbogen)은 '비의 활'이다. 옛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경이와 상서로움을 느끼며 희망과 조화의 상징으로 여겼다. 무등산의 옛 이름인 '무뎡'에도 무지개처럼 굽고 아름다운 뿔산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한때 서석산(瑞石山)이라고 불렀던 연두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지구가 인형이 쫓아다니는 때까 오면 인종과 종교, 국적을 초월해 모인 '무지개 전사'들이 힘을 합쳐 싸움을 펼치게 된다는 예언이 전해온다. 지난 6월 마지막 항해를 위해 영광원정 해상을 찾은 그린피스의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는 이 예언에서 따왔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간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